

‘공직·취업 명문’ 충남도립대 수시 369명 선발

내달 2일까지 ‘신입생 모집’
컴퓨터·뷰티 등 13개 학과
등록금 전액장학금 등 혜택
통학버스·예술활동 운영도

충남도립대가 10월 2일까지 수시 1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10일 도립대에 따르면 수시 1차 모집은 13개 학과에서 입학 정원(447명)의 82.5%인 369명(정원 내)을 선발한다. 모집기준은 학생부성적과 면접

점수(일부 학과)를 합산해 선발하며, 수능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모집학과는 공학계열의 경우 건설안전방재학과, 환경에너지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인테리어학과 등 6개 학과다.

인문사회계열은 자치행정학과(주·야), 경찰행정학과, 토지행정학과 등 3개 학과다. 자연과학계열은 호텔조리제빵학과, 뷰티코디네이션학과, 작업치료과, 스마트팜학과 등 4개 학과다.

도립대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통

해 충남 유일의 공립대로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 도립대는 공직과 취업 명문 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교 이래 1102명의 공직자를 배출했다. 등록금 전액 장학금 등 전국 공립대 중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기숙사 전입 시 연간 100만 원에 달하는 주거 장학금을 지급한다. 천안·세종·대전·내포·예산·아산·공주·부여·논산·홍성·서산·당진·보령·서천 등 통학버스도 무료로 운영한다. 방과 후에는 배드민턴, 일본어, 탁구, 테니스 등 문화·예술 활

동을 지원하는 RC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https://cnsu.ac.kr>)를 참고하거나, 카카오톡 입시 Q&A채널(http://pf.kakao.com/_Lbpxoxb) 또는 기획홍보처(041-635-6699)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찬 총장은 “충남도립대는 안정적이고 우수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학업과 자기 계발에 집중하면서 지역 인재로 거듭나고 싶은 학생에게 최적의 대학이므로 많은 신입생의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공주 민선8기 공약이행률 74% ‘순항’

시, 정책자문위 회의 열고 상황 점검
신5도2촌·교육공동체 등 29개 ‘완료’

공주시는 민선 8기 공약이 9일 현재 이행률 74%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9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선8기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 같이 평가했다.

민선 8기 4대 시정 목표별로 살펴보면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분야 71%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분야 75%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분야 85.62%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분야 62.7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5도2촌 정책 추진을 비롯해 학교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근현대 유물 개신교·천주교 등을 연결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3건의 공약이행을 최근 완료하면서 현재까지 29개의 공약이 완료됐다.

시는 공약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충남도를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힘을 모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5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8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공주·박종규 기자



부여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팔 걷어

공직자 대상 청렴소통·공감 콘서트
박정현 군수 즉문즉답 시간 ‘호응’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9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공직자 24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청렴 소통·공감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소통·참여 중심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이날 박정현 군수가 대담자로 참석해 세대간 인식 차이에 인한 업무 만족도, 갑질 문제,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행정 투명성 강화 노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직원들이 익명으로 질문할 수 있는 즉문즉답 시간에는 평소 직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청렴을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공연도 진행되었다. 전문 마술사가 선보인 청렴 마술·마임 공연, 그리고 화음과 화합을 주제로 한 아카펠라 공연은 참여한 공직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박정현 군수는 “청렴은 우리 조직의 핵심 가치이며, 공직자로서 군민의 신뢰를 받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다. 업무와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직자 모두가 지속해서 청렴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여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TF팀 운영, 갑질행위신고센터, 맞춤형 청렴 교육, 군수님이 전하는 청렴 메시지, 청렴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렴도를 개선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부여·김기태 기자

지류형 보령사랑상품권 20억 규모 발행

시, 고글리·고물가 어려움 해소 목적
내일부터 40개 판매대행점서 구매가능

보령시는 고글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류형 보령사랑상품권을 2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할인율은 10%,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70만 원으로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지류형 상품권은 12일부터 NH농협은

행 등 보령시 40개 판매대행점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보령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인 ‘지역상품권 차(Chak)’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앱을 통한 QR 결제뿐만 아니라 협약 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신한, 우체국, 수협)에서 카드로도 발급해 사용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 판매대행점 금융기관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유구~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해야”

공주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해
신속한 운행차량·인력확보 요구
“지역소멸 가속화 요인” 지적도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는 9일 개최한 제25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본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공주 유구터미널에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운행을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충남도는 버스 운수업체와 협력, 운행 재개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운행 차량 및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외버스 운행 중지로 인해 유구·신풍

지역 주민은 공주 종합버스터미널까지 시내버스로 50분 동안 추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의 손실로 이어져 지역 주민 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구본길 의원은 “농촌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외버스 운행 중단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유구를 인구 구성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3.7%를 차지한다. 유구읍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교통약자 노인의 이동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 문제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충남도 등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공주·박종규 기자

국립생태원, 특허기술 중소기업에 이전

공주 소재 에코리서치와 계약 체결
멸종위기 소형어류 포획 조사 활용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이 저서성 소형 담수어류 포획용 그물 특허 기술을 공주에 위치한 중소기업 ㈜에코리서치에 이전하는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9일 체결했다.

해당 특허는 국립생태원 어류·양서·파충류팀 연구진이 개발한 생태계 조사장비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흰수마자 등 하천 바닥에 서식하는 소형 담수어류를 효과적으로 포획해 조사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깊은 수심으로 인해 포획이 불가능했던 지역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 하

천 수중 생태계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이전을 받는 ㈜에코리서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조사 및 보전전략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민간 중소기업으로 이 기술을 국가 멸종위기 담수어류 조사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태원은 앞으로도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하고 국가기술금융 등 지원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역상생 기술이전 전략을 운영해 국립생태원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수요 기술을 연결하고 성공적으로 이전해 나갈 계획이다.

서천·나재호 기자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하세요”

농어촌공 서천지사 희망자 모집
고령농업인 노후 생활안정 도모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지사장 김남표)가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참여 희망자를 신청 접수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10년 이상 농업 경력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만65~84세) 소유의 농지 가운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공사나 청년농업인에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 임대로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

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으로부터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활성화를 통해 고령 은퇴농의 안정된 노후보장과 청년농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나 농지은행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서천·나재호 기자

지사안내

공주지사	041)854-3150
보령지사	041)933-4730
부여지사	041)835-2873
서천지사	041)951-9977
청양지사	041)943-7982

13일부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주 공산성’

공주시 공산성에서 매력적인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시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산성 일원에서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주 공산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을 배경으로 백제의 화려한 문화를 재현하며 백제역사유적지구만이 가지는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주제는 ‘무령의 나라, 찬란한 희망의 빛’으로 백제의 중흥을 꿈꾸던 무령왕의 웅진백제를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펼쳐낸다.

이금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개막식의 포문을 열며 금서루 외벽에 연출되는 미디어파사드, 환두대도에 아나몰픽 기법을 적용한 ‘대왕의 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백제문화의 신비로운 경향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주·박종규 기자



청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

청양군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2024년 제7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소통대상’을 받았다. <사진>

10일 군에 따르면 2021~2023년 종합대상에서 이은 4년 연속 수상이다. 2018년 제정된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한다.

군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수당을 3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세어하우스(블루십하우스 포함) 운영, 청년활력공간 운영, 청년창업공간 ‘누구나가게’ 확대운영(4개 점포), 청년취업지원수당,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세어하우스(함께살아U·62억)와 청년센터(내일이U·30억) 건립사업을 통해 청년의 주거·소통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부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조기지급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추석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명절을 앞둔 생계급여수급자 2209가구, 시설수급자 311명이 시름을 덜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9월에는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연휴에 앞서 13일 지급될 전망이다.

박정현 군수는 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통해 취약 계층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보령 세무담당자 대상 재산세 직무교육

보령시는 9일 시청 민원동 회의실에서 17개 읍면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2차 재산세 직무교육을 했다

다고 10일 전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올해 9월 토지 및 주택2기분 부과·고지에 맞춰 했으며, 재산세 개요 및 세액계산, 차세대지방세시스템 필수기능 및 민원처리 요령 등 실무중심 위주로 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의 세무 역량을 강화하고, 분청과 읍면동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사례 공유 및 민원 해결 지원을 통해 납세자가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7월 재산세 직무교육을 실시한 이후 세무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이 향상되어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었다”며 “이번 2차 직무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실현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